

“카리부! 탄자니아에 처음 오신 부처님”

(환영합니다)

현장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문 열던 날

학교 설립으로 낙후지역 대변화
구호활동 넘어선 해외포교 큰 획

공평한 기회 주는 깨달음의 공간
한국서 이윤한 비로자나불 봉안

현지 주민들 “한국불교에 감사...
탄자니아도 잘 사는 나라 될 것”



지난 5일 탄자니아 경제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 차량으로 3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무외송가 마을. 한국에서 온 조계종 대표단이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카리부(환영합니다)” 하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마을 인구 90% 이상이 무슬림과 가톨릭 신자인 이곳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대거 발걸음을 한 것은 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조계종이 설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개교식 참석차 지구 반대편에서 장장 20여 시간을 날아 학교를 찾은 대표단을 맞는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 얼굴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 처음으로 생긴 농업전문대학이 생긴 것이다. 탄자니아 최대 도시이자 경제수도인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해 있지만 외곽에 치우쳐 있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이곳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찾아와 다르에스살람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원예전문학교를 세워준 것이다. 최신 설비를 갖춘 학교가 설립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숙원이던 전기가 설치됐다. 머지않아 맑은 물이 쏟아지는 수도 시설도 들어올 것이다.

탄자니아는 사회주의 전통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편이지만, 이날 무외송가 마을 주민들은 개교식 내내 ‘보리가람’을 주문처럼 되뇌며 낯선 외지인을 반겼다. 아이스메일 말로 위(22)씨는 “불교는 잘 알지 못해도 ‘보리가람’이 무슨 뜻인지는 안다”며 “지혜를 배우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공부를 하면 50년의 식민 지배를 겪은 탄자니아도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웃었다.

보리가람대학의 개교를 무엇보다 손꼽아 기다려온 것은 학생들이다. 첫 입학생 아우레리아 마운디(18)양은 다르에스살람 중심부에서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외곽에 위치한 보리가람대학에서 먹고 자며 생활한다. 마운디 양은 “조용하고 한적하면서도 최신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공부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작은 농

장이라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정부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 활동에 나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종교는 다르지만 스님과 불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다”며 “언젠가는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다.

개교식에 맞춰 학교를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단주를 채워준 후 “보리가람대학이 한국과 탄자니아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공을 한국의 불자들에게 돌렸다. 총무원장 스님은 “나 또한 학교의 미래가 궁금하다”며 “충단과 아름다운동행이 자력으로 장기적인 학교 운영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학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대표단도 감격 어린 소감을 전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스님은 개교식에 앞서 농림부 차관 등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중앙승가대에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스님이 되려는 학생이 있다면, 혹은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다면 중앙승가대가 학비를 지원해 탄자니아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스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단의 원력과 한국 불자들의 신심으로 아프리카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교육 도량을 건립한 것은 한국불교의 자부심”이라며 “‘보리가람’이라는 학교의 의미처럼 부처님 자비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로 펼쳐질 기원하겠다”며 “학생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동봉스님과 함께 학교 부지를 기증한 신도 성다고운 씨도 이번 개교식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성다고운 씨는 “10년 전 아프리카에 처음 왔었던 때가 생각난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해

외 포교에 대한 원력과 한국 불자들의 힘이 없었다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보리가람대학 강당에 모셔진 삼존불과 진신사리를 기증한 대전 광제사 주지 경원스님은 부처님이 봉안된 모습을 보고 감격을 금치 못했다. 경원스님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벅차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며 대중에 삼배를 올리기도 했다.

이번 학교 개교는 조계종의 해외포교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일이기도 하다. 스님들의 개별적인 원력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거나 불교권 국가와의 교류활동을 위주로 했던 과거와 달리 제 3지역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으로 범위를 넓힌 데 이어 이제는 직접 학교를 세워 거점을 마련한 포교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충단이 해외 포교의 역사를 새로 쓴 이날, 탄자니아 정부기관과 주탄자니아 대사관 등은 학교 운영 제반 사항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를, 대표단 스님들은 ‘1사찰 1학생 결연’ 캠페인에 대한 동참을 약속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학교 설립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줬던 송금영 주탄자니아 대사는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불교가 물질양면으로 도와 오늘의 성과를 이룬 것 같다. 아프리카에 불교가 처음 들어오는 이 뜻 깊은 날, 보리가람대학이 탄자니아를 넘어 세계속에서 유수의 대학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교식에 앞서 대표단은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지부가 영양 급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무감바 초등학교를 방문, 책걸상 60여 개를 지원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조계종이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성금 50여억을 투입해 건립한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착공 3년만인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탄자니아의 경제 수도 다르에스살람의 외곽 4만여 평의 부지에 세워진 보리가람대학은 한국불교가 뿌린 자비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보리가람대학, 탄자니아 전체 변화 이끌 것”

■ 조셉 퉁구르 교장



“무슬림이든, 불교든 종교를 떠나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지혜를 쌓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탄자니아 나라 전체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첫 교장으로 부임한 조셉 퉁구르(73·사진) 씨는 “탄자니아에서는 교육이 곧 희망”이라며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무외송가 마을과 다르에스살람, 나아가 탄자니아의 미래에 소중한 나눔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위 출신인 그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 공평한 기회를 주려는 아름다운동행의 설립 취지에 공감해 교장직을 맡았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학교에 갈 능력도 인맥 등에 밀려 좀처럼 진학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리가람대학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불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학교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퉁구르 교장은 “불교를 접해보지 않아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보리

가람’이라는 이름에 대해 설명하자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바뀌었다”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그 기대와 바람이 취업으로 연결돼 다시 보리가람을 위한 도움이 손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아가 세계 무대로 진출해 또 다른 곳에서 자비의 손길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 불자들이 모아준 그 정성과 마음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건립 ‘한눈에’

2013년 1월	4월	5월	9월	2014년 9월	12월	2015년 4월	6월	7월	2016년 8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 신년기자회견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천명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 동봉스님과 성다고운 씨, 탄자니아 토지 4만여 평 기증	아프리카 학교 건립 선포식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무외송가 마을서 기공식	학교명칭 ‘보리가람’ 확정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 개최	건립 기금 마련 위한 ‘선서화전’ 개최	탄자니아 빈곤 아동에게 매월 3만원 지원하는 1:1 결연 사업 시작	2014년 10월 시작한 ‘드림 아프리카(Dream Africa) 저금통’ 캠페인 종료	학교 완공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 한국 불교 대승의 자비와 지혜가 여법하게 파종돼 꽃피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할 것”	- 다르에스살람 토지 8만 3000m ² , 킬리만자로 마랑구게이트 1만 1600m ² 등 총 9만 4600m ² 기증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가 간화선 증흥을 위한 선서화전 판매 수익금 5억원을 쾌척하며 첫 기부자로서 나섬	탄자니아 현지서 급식 지원 ‘하피콘’ 프로젝트, 우물지원 통한 식수개선 ‘Co-water’, 어린이 독서 장려 사업 ‘토토의 꿈’ 등 시작	- 깨달음의 공간이 돼 학교 내 가르침이 탄자니아, 세계로 퍼져 빈곤 퇴치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조계사, 봉은사, 108산 사순제기도회를 비롯해 국회 정각회 의원 등 기부 동참	- 구하·경봉·청담스님 등 한국 대표 근현대선지식의 글과 그림 및 유명 화백들의 한국화 등 500여 점 전시	- 키클라니 지역 4개 초등학교 학생 1440명 대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하는 330명의 아동 선정, 영양식, 학용품과 학비, 건강검진 제공 결연	- 10개월 동안 3억원의 모금 마련	탄자니아 정부 기관으로부터 학교 영문명, ‘Borigaram Agriculture Technical College’에 대한 공식 허가 받음
						- 총무원장 스님이 개인 소장품 300여 점 기증, 10월 동안 진행된 선서화전에서 20여억원 모연			한글명칭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으로 최종 결정
									8월말 현재까지 모금 총액은 4억 3440만원

